

무안군 농산물 도매시장 입점자 반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군 농산물 도매시장 입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 도심 한복판에 흉물로 방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입점자들이 지난해 6월 보상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군을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추진위 대표 코씨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1991년 무안군의 특산물인 양파·마늘·고추·고구마 등이 6·7단계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것을 2·3단계로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농민의 이익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목포시, 지역 발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목포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목포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4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

공모 주제는 ▲ 지역경제활성화(기업유치, 관광객유치, 해양수산업 활성화) ▲ 시정혁신(시정 시민참여 확대, 시민·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 인구감소 극복(인구유입 및 출산율 제고 방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삶의 질 개선(환경·보안 등 시민 삶의 질 높이기) ▲ 10년 후 목포의 성장동력(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SOC, 미래의 핵심 성장산업 발굴) 등 5개 주제로 목포가 나아갈 방향과 해결책을 시민들의 시선으로 찾는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국민신문고(<https://epeople.go.kr>)나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우편(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팩스(061-270-3578) 등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061-270-3211)로 문의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3차례 심사를 거쳐 5월말까지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채택 등급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내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목포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씨앗이 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대책추진위 구성 군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개점 휴업 상태 27년째 흉물 방치 보상 서둘러야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군을 믿고 서슴없이 투자했다.

그러나 개점 휴업상태 27년 동안 흉물로 방치된 시장을 입점자들에게 돌려 주거나 보상하지 않고 조례까지 만들어 감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상 대책위에 따르면 91년 5월 준공 예정으로 10억원을 들여(군·도비40%민자60%)무안군무안읍 성남리 813이 3필지 2천1백여평에 연건평 1천3백여평으로 42개 점포를 설

계하여 착공을 하였으나 같은해 4월 21일 농안법 제13조(도매 시장을 시·지역 제한한다)의 저촉으로 '군 지역 도매시장 개설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던것.

그리고 무안군이91년 3월20일 '도매시장 법 관련 대책회의'에서도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고 "조합식 운영은 도저히 불가하다"결론을 내린 사실이공문서에 적시돼 있다.

이같이 사업 주체인 국가기관이 대책회의에서 스스로 밝히고도 추후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당초 사업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7월 19일 무안농산물 유통 주식회사라는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했던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셈이라는것.

대책위 측은 "국가기관이 행정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감질행포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감질행포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무안군은 "당시 내용을 잘 아는 공무원이 없어 남아있는 자료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다"며 행정착오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왼쪽부터) 강진원 강진군수, (췌)가우도해양레저 김경수 대표.

강진 가우도, 해양관광 메카로 발전

강진군이 (췌)가우도해양레저와 지난 30일 아트홀에서 강진만 해양관광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MOA(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강진군은 전라남도가 선정한 가고 싶은 섬 가우도를 중심으로 마량 미항과 강진만 생태공원을 잇는 마리나 요트 등을 운항할

적, 레저보트 4척 등)으로 가우도~비래도 구간에 마리나 요트와 제트보트를 운항 할 계획이며, 현재 각종 인허가 신청 및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가고 싶은 섬 가우도를 중심으로 마량 미항과 강진만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군, 해양관광 체험시설 MOA(투자합의각서) 체결

투자액만 40억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기

계획이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강진만 A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체결한 투자합의각서(MOU)의 구체화 및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이번 MOA를 체결했다.

MOA(투자합의각서)의 주요내용으로 사업(요트 운항) 중단시 원상복구 및 용도전환, 계류장 위수탁계약 및 수탁료 징수, 강진군민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등이 다.

강진만 해양관광 체험을 위한 마리나 요트 등 운항사업은 민간 투자금액 40억원(마리나 요트 2

마리나 요트 등 운항으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해양관광시설 기틀을 마련하고 해양관광 체험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면 망호 출렁다리 입구에 투자업체에서 마리나업 등 특색을 위한 마리나 요트 대합실을 설치중이며, 빠르면 오는 5월경 요트 1척 및 제트보트 4척이 운항할 예정이다.

강진=김명일 기자

해남서 고교 태권도 최강자가 가린다

오늘부터 8일까지 용인대총장기 전국태권도 대회 열려



제28회 용인대총장기전국태권도 대회가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용인대학교와 대한태권도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의 고교 태권도 선수 250여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특히 태권도 꿈나무 발굴의 요람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전국대회이다. 종목은 품새와 체급별 겨루기, 시범경기로 진행된다. 품새는 개

인전, 단체전, 페어전으로 펼쳐지고 겨루기 종목은 가장 작은 핀급부터 가장 무거운 헤비급까지 체급별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치러진다.

시범 경기는 체급3단 차기, 체급회전 3단 차기, 자유구상경기로 구성됐다.

특히 4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시범 경기는 태권도의 기본기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태권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체급회전 3단 차기는 선수가 허공에 뜬 채 몸을 54도 회전하면서 목표물을 발로 차는 경기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4월 4일 개최식에서는 용인대 시범단 100여명이 태권도 시범을 선보여 뜨거운 즐거움을 안길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임원, 학부모 등 4000여 명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암군,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 실시

1kg당 4,000원에 수매

영암군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외래어종인 큰입배스와 블루길(파랑날우럭) 퇴치를 위해 이달부터 수매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래어종이 내수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내수면 생

태계를 교란시킴에 따라 토종어종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매대상은 관내 내수면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에 한하여 실시되며 어업인이 포획한 외래어종을 1kg당 4,000원에 수매한다.

사업 목표량은 7,500kg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수매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래어종 퇴치 및 생태계보전은 물론 외래어종 수매를 통하여 관내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민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곡성군, 농업기계 안전·기술교육 성료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7일 한 달 간 농업기계 초보자와 귀농·귀촌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업에 사용되는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기초적인 작동원리와 조작요령 및 안전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고장 원인 및 사고에 대처하

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기술력과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농번기철을 앞두고 진행되어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얻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월 중 곡성, 옥과, 석곡의 버스터미널 및 5일 시장 일대에서 농업기계 안전사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김광희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